

# 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정소*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6.06.26. ~ 07.16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이 있는 곳은 마치 신창과 같이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지 않으면 학교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건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다 1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어 처음에는 건물을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건물외부에 건물번호가 적혀있어 나중에는 차츰 익숙해져갔다. 캠퍼스 크기는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기숙사는 2인1실로 책상 위에 침대가 달려있다.
Hospitality Class	초기 모집에서 관광경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수업이 정말 관광경영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용어들이 나와서 타 전공학생들은 새로운 영어단어를 숙지함과 동시에 그것이 한국말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숙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노력하였지만 관광경영 전공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수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담당 교수님께서서는 한국인의 영어 액센트를 거의 알아듣지 못하셔서 주변에서 다시 말해주거나 종이에 적어 무슨 단어인지 알려드리는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수업에는 지장이 없었다. 수업을 통해 내가 머물렀던 레딩의 관광지와 더불어 Hospitality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Computer Class	이 수업 교수님은 정말 굉장하신 분이였다. 우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노력하셨고 엑셀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잘 알려주셔서 너무 잘 배웠다. 컴퓨터가 있는 교실에서 배웠는데 시설도 너무 좋고 엑셀을 영어로 배우게 되어 너무 재밌었다. 또한 웹사이트 만드는 법도 배워 지금도 나만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니 너무너무 뿌듯했다.

필드트립	<p>필드트립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Keith선생님께서 부담해 주셨지만 Scott 선생님과 다녀온 필드트립은 점심값정도 개인 부담이 이뤄졌다. 따로 준비물이 있던 경우는 없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다녀 올 때는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을 두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p> <p>-Old shasta -Burney falls -샌프란시스코 등</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하늘이 맑고 강수확률이 거의 0%이며 기온이 높다. 대체로 높고 건조한 기후이지만 실내에 에어컨 온도가 많이 낮아 실내에서는 반팔, 반바지만으로는 춥게 느껴질 수 있다.
안전	학교 내에 경비해주시는 분들이 24시간 계시고 기숙사 역시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게 되어있으며 기숙사 내에 밤부터 새벽까지 근무하시는 advisor도 계신다. 안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숙소	2인 1실로 개인에게 각각 키가 주어지며 기숙사 내에 주류 반입이 금지되고 밤늦게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advisor의 제재). 우리가 머물렀을 때에는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건물에서 생활하여 우리가 머무른 건물 내에는 우리 8명만 있었다. 공동 부엌이 있어 취사가 가능하다.
식사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주로 식사를 하였고 주로 햄버거, 감자튀김, 스크램블 에그, 부리또 등이 나온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지 않아 따로 해먹어야 하는데 카페테리아에서 재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계속 피자, 햄버거, 튀긴 음식들만 먹다보니 배변활동에 문제가 조금 생기긴 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뒤 문제가 해결 되었다.
교통	버스 노선도 잘 숙지하기만 한다면 시내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국과 달리 버스가 초저녁에 끊기기 때문에 시간계산을 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왕복 항공료	1,560,300	국내 납부
보험료	16,750	국내 납부
환전	349,683	\$300
쇼핑	274,309	카드결제, 생필품 및 선물
합계	2,201,042	

#### 5. 출국 전 준비사항

여름이지만 너무 짧은 옷만 가져가지 말고 기후를 잘 체크하여 35도 이하일 경우 자켓이나 남방 등 긴 옷을 넉넉히 챙겨 가는 것이 좋다. 옷을 너무 많이 챙길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 너무 모든 것을 챙겨갈 필요가 없다. 또한 큰 가방으로 하나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넉넉히 두 가방에 가져오는 방법도 추천한다.(30인치 큰 가방 하나만 가져갔다가 무게를 맞추느라 꼭 채우지도 못하고 텅텅 비게 되고 다른 가방을 하나 더 마련하여 귀국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귀국 전 너무 아쉽고 정이 들어 샤스타 대학으로의 유학을 고려하게 되었다. 다들 너무 착했고 레딩에는 동양인이 많이 없어 관심과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 감사했다. 다시 한번 샤스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방문하고 싶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비아니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 그 친구 집에 방문하여 다같이 멕시코 전통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p>	<p>미국의 독립기념일날 Keith선생님 댁에서 만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p>



샤스타 대학에서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야경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Scott선생님과 함께 총을 쏘았다.



Lassen 산에 올라가니 눈이 있었다.  
Scott교수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다.